논산을 국방클러스터 중심지로*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충청남도는 그동안 국방대학교의 논산유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 논산은 육군 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등과 함께 동일 생활권내 3군 본부와 군수사령부, 자운대 등 군사관련기관이 집중돼 있어 연고지 배치원칙 차원에서 보면 국방대학교 유치를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다. 무엇보다 국방대학교의 논산 이전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논산지역이 지닌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정보 · 통신 전자기술과 항공, 로켓, 로봇 등 정밀기계 및 신소재 분야의 첨단기술에 의존하는 국방산업은 기술혁신과 산업성장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국방산업은 국가예산의 10여%에 달하는 국방예산과 연계돼 시장 규모가 크고, 안정성과 성장 추세가 높은 특성이 있다. 국방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연구 및 기술개발의 비중이 높고 산업간 연계와 융합 활동이 활발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대량생산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국방산업의 성장이었다. 현대 전쟁이 점차 정보와 기술전쟁으로 변모하면서 군사적 목적의 정보 · 통신, 항공, 로봇 기술, 첨단 소재분야의 연구와 기술개발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방산업의 확대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혁신과 신기술제품 생산의 확대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중도일보(2007. 10. 1)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OPINION

국방산업은 대부분 전문지식과 인적기반, 첨단기술과 지식의 집적도가 높은 대학의 인근 지역, 그리고 온난한 기후와 쾌적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 여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래서 국방산업이 집중된 산업지대를 "해가 뜨는 지역" 또는 "군사(대포) 벨트"라 부르기도 한다. 미국 서부의 "실리콘 밸리", 노스캐롤라이나 "리서치 트라이앵글", 그리고 보스턴 "루트 128" 등 첨단산업지대들이 모두 대표적인 군사산업 클러스터라 할 수 있다.

국방산업 클러스터는 아무 곳에나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논산은 군사산업의 핵심 기술인 정보 · 통신 및 신소재분야의 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충남대학교 등 전문 과학 기술인력 양성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협력센터를 비롯하여 군수품 조달을 총괄하는 군수사령부, 우리나라 군사 전략의 총 본산인 계룡대 등이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전문가 집단 간 교류와 협력이 용이하기 때문에 군사산업 클러스터 형성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논산에는 이미 군사산업 부문의 산-학-관간의 연계와 협력기반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군수분야 중소기업의 이전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앞으로 국방산업 성장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은 국방도시로서 논산시의 위상과 군사관련 전문 인력의 집적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사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논산지역에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대전과 충북지역의 군사관련 기술 및 산업과 연계하여 초광역적 군사산업 벨트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군사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